Andi Fischer

해외 ARTIST 앤디 피셔

1987년생 독일

2026 / 08 / 20

<AHA HOPE> 캔버스에 오일 스틱, 연필 180×140cm 2025

앤디 피셔(1987년생, 독일)는 원시적인 선과 단순한 색채의 구상회화를 통해 독창적인 회화 언어를 구축해 왔다. 완전히 채색되지 않은 대담한 여백과 어린아이의 낙서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아르브뤼(Art Brut)의 특성을 드러내며, 자유로운 형식과 깊이 있는 미술사적 이해를 결합한 독특한 미학을 보여준다.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의도적으로 모순적인 경험을 유도하며 예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관습을 뒤흔든다. 작품 속 자연 모티프는 서양미술사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기존의 상징성을 벗어나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오일스틱을 활용한 즉흥적인 화면은 거친 선과 대담한 색채, 여백, 부조리한 구성으로 유쾌한 긴장감과 해방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은 치밀한 탐구와 반복된 실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결과이며, 고정된 양식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앤디 피셔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베를린예술대학교를 졸업한 뒤, 권위 있는 토이베를린마스터즈어워드를 수상하며 유럽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갤러리바톤(2026)에서 국내 첫 개인전 <Feil Good(실패도 나쁘지 않아)>을 개최하며 회화와 조각을

아우른 작업 세계를 선보였으며, 6월 만하임 쿤스트페라인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벤스하임 뮤지엄(2022), 쿤스트페라인 울름(2020) 등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 갤러리바톤(Kiaf B01)에 게재되었습니다.